

미용사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윤 복 연

동서울대학 뷰티코디네이션과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Hair Designer

Bok-Yeon Yoon

Dept. of Beauty Coordination, Dong Seoul College
(2006. 6. 5. 접수)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level and relevant factors of influencing quality of life of Hair Designer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prepare intervention program for them.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733 Hair Designer who worked in beauty shops located in big and small cities including Seoul, Busan, Daegu, Daejeon, Gwangju, Gyeongju, Changwon, Andong,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or four months from February to June 2005.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of Hair Designer are lower than one of workers in other jobs. Particularly,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quality of life, and that the lower the income and the shorter working hours, the lower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Thus, the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Hair Designer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working conditions.

Key words: Hair designer(미용사), Quality of life(삶의 질), Beauty shops(미용실), Income(소득), Working hours(근무시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인간 삶의 정도와 가치를 다루는 것으로 인간의 가치와 관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각 연구자마다 접근하는 관점, 목적, 방법에 따라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상이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경제학자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질 높은 삶으로 볼 수 있고, 사회학자는 사회적 자원이 풍부한 삶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규정할 것

이고, 환경론자들은 주변 환경적 요소가 쾌적하고 우호적인 곳에서 질 높은 삶의 가능성을 찾을 것이다. 또 많은 학자들은 삶의 주관적 느낌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¹⁾.

사회가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인간의 미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미용업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미용이라는 일은 기술과 서비스가 그 기둥이 되어 미용업종사자들이 행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용관련분야의 전문직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 미용사들은 장시간 서서 작업을 하며, 고객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식과 예술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²⁾.

미용사들의 업무 특성상 단순한 반복 작업과 부적

*Corresponding author: Bok-Yeon Yoon

E-mail: yoonbokyoon@hanmail.net

절한 작업 자세, 과도한 노동시간과 오래 서 있는 시간³⁾, 과도한 근무시간 및 과중한 업무로 불규칙한 생활습관, 운동부족, 스트레스의 누적 등은 미용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4,5)}으로서 미용사들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미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관한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관찰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용사들의 삶의 질을 파악함으로써 미용사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미용사들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미용사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미용사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미용사들의 일반적 특성, 업무관련특성을 파악한다.
- 2) 미용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관련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한다.
- 3) 미용사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용어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도입된 어휘로 사회 지표(social indicator)에서 유래되었으며⁶⁾, 사회학자인 Campbell이 미국에서 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으며⁷⁾, Dubos(1976)⁸⁾는 삶의 질을 삶의 질을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얻는 만족감과 관계되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라 하였고, George 등(1980)⁹⁾은 삶의 만족, 자아 존중감, 건강상태와 기능 및 사회상태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로 삶의 질을 정의하였으며, Young과 Longman(1983)¹⁰⁾은 현재의 삶의 환경여건에 대한 만족도라고 정의함으로써 신

체, 정신적인 것 외에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환경을 포함시켰다.

한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개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질은 행복, 만족, 긍정적인 정서, 사기 등의 개념이 내포된 주관적 안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은 개인의 사회적인 배경조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노유자(1988)¹¹⁾는 삶의 질의 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 주관적인 안녕감, 행복, 만족은 사회적, 철학적, 심리적 측면에서 각기 표현을 달리했을 뿐 같은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정서의 우세성과 생활 중에 경험하는 신체, 정신, 사회, 경제측면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이라 정의하였다. 따라서, 삶의 질의 개념은 개인이 삶 전체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의 주관적 평가와 함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이 모두 포함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2005년 2월부터 6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주, 창원, 안동 등지의 임의의 미용실 근무자 801명에게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 총 801부 중에서 733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충분한 설문지 68부를 제외한 91.5%를 통계처리 분석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의 도구는 설문지로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관련문항들을 발췌하였으며 2005년 1월초에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50명의 미용사들에게 배포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수정 보완 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적 특성, 업무관련 특성, 미용사의 삶의 질 등을 조사하였다.

업무관련 특성은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미용사의 근무조건 7문항으로 하였으며 삶의 질의 조사 도구는 노유자(1988)가 개발한 4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6개 요인으로는 정서 상태 9문항,

경제생활 11문항, 자아 존중감 8문항, 신체 상태와 기능 9문항, 이웃관계 4문항, 가족관계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통계분석방법

조사대상자로부터 수집된 총 801부 자료 중에서 잘못 기재되었거나 무응답이 많은 자료는 폐기하고 733(91.5%)부를 SPSS for Windows(Version 10.0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처리하였다.

삶의 질에 대해서는 각 영역별로 Ch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업무관련 특성은 빈도분포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업무관련 특성별 삶의 질 평균 점수는 항목별로 t-test와 분산분석(ANOVA)로 비교하였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결과

1) 일반적 특성별 조사대상자의 분포

조사대상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9.5%(143명), 여자 80.5%(590명)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20~24세 28.5%, 30~39세 23.5%, 25~29세 22.2%, 19세 이하가 13.8%, 40세 이상 12.0%순이었다. 결혼 상태에서는 미혼 63.0%, 기혼 34.8%, 기타 2.2%순이었고, 종교에서는 종교가 있는 군이 58.4%, 종교가 없는 군이 41.6%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47.3%, 전문대졸은 40.1% 대졸이상은 12.6%순이었고, 수면시간은 6시간 이상 7시간미만이 28.0%로 가장 높았고, 7시간 이상 8시간미만이 27.0%, 8시간 이상 26.6%, 6시간미만이 18.4%순이었다. 치료중인 질환이 없는 미용실 근무자는 86.9%였고, 질환이 있

<표 1> 일반적 특성별 조사대상자의 분포

(단위 : 명)

특성	구분	남(%)	여(%)	계(%)
연령	19세이하	15(10.5)	86(14.6)	101(13.8)
	20~24세	29(20.3)	180(30.5)	209(28.5)
	25~29세	46(32.2)	117(19.8)	163(22.2)
	30~39세	38(26.6)	134(22.7)	172(23.5)
	40세이상	15(10.5)	73(12.4)	88(12.0)
결혼상태	미혼	98(68.5)	364(61.7)	462(63.0)
	기혼	43(30.1)	212(35.9)	255(34.8)
	기타	2(1.4)	14(2.4)	16(2.2)
종교	없다	66(46.2)	239(40.5)	305(41.6)
	있다	77(53.8)	351(59.5)	428(58.4)
학력	고졸이하	67(46.9)	280(47.5)	347(47.3)
	전문대졸	59(41.3)	235(39.8)	294(40.1)
	대졸이상	17(11.9)	75(12.7)	92(12.6)
수면시간	6시간미만	26(18.2)	109(18.5)	135(18.4)
	6~7시간미만	38(26.6)	167(28.3)	205(28.0)
	7~8시간미만	41(28.7)	157(26.6)	198(27.0)
	8시간이상	38(26.6)	157(26.6)	195(26.6)
치료질환	있음	11(7.7)	85(14.4)	96(13.1)
	없음	132(92.3)	505(85.6)	637(86.9)
계		143(100.0)	590(100.0)	733(100.0)

다는 응답자는 13.1%였다.

2) 업무관련 특성별 조사대상자의 분포

근무경력별로는 1년 미만인 35.7%로 가장 높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이 26.2%, 10년 이상은 21.6%, 1년 이상 3년 미만이 16.5%순이었다. 1일 근무시간별로는 9시간이상 1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의 74.6%였으며, 9시간미만은 16.2%, 12시간 이

상은 9.1%순이었다. 1개월간의 휴일 수는 5일 이상이 67.9%로 가장 높았고, 3일 이하 25.1%, 4일 7.0% 순이었으며, 같이 근무하는 동료의 수는 3명 이하가 35.3%로 가장 높았으며, 4~9명이 29.2%, 20명 이상이 19.5%, 10~19명이 16.0%순이었다. 근무지위별로는 인턴 33.0%, 디자이너 22.6%, 원장 18.3%, 중상 17.7%, 실장 8.3%순이었다, 월 소득별로는 50~99만원이 32.5%로 가장 높았고, 100~149만원 21.8%, 49만원 이하 17.1%, 200만원 이상이 16.9%, 150~199만

<표 2> 업무관련 특성별 조사대상자의 분포

(단위:명)

특성	구분	남(%)	여(%)	계(%)
근무경력	1년미만	47(32.9)	215(36.4)	262(35.7)
	1~3년미만	29(20.3)	92(15.6)	121(16.5)
	3~10년미만	39(27.3)	153(25.9)	192(26.2)
	10년이상	28(19.6)	130(22.0)	158(21.6)
1일 근무시간	9시간미만	23(16.1)	96(16.3)	119(16.2)
	9~12시간미만	108(75.5)	439(74.4)	547(74.6)
	12시간이상	12(8.4)	55(9.3)	67(9.1)
월 휴일수	3일이하	31(21.7)	153(25.9)	184(25.1)
	4일	7(4.9)	44(7.5)	51(7.0)
	5일이상	105(73.4)	393(66.6)	498(67.9)
근무인원(동료)	3명이하	29(20.3)	230(39.0)	259(35.3)
	4~9명	46(32.2)	168(28.5)	214(29.2)
	10~19명	31(21.7)	86(14.6)	117(16.0)
	20명이상	37(25.9)	106(18.0)	143(19.5)
근무지위	인턴	42(29.4)	200(33.9)	242(33.0)
	중상	28(19.6)	102(17.3)	130(17.7)
	디자이너	36(25.2)	130(22.0)	166(22.6)
	실장	20(14.0)	41(6.9)	61(8.3)
	원장	17(11.9)	117(19.8)	134(18.3)
월소득	49만원이하	22(15.4)	103(17.5)	125(17.1)
	50~99만원	45(31.5)	193(32.7)	238(32.5)
	100~149만원	36(25.2)	124(21.0)	160(21.8)
	150~199만원	15(10.5)	71(12.0)	86(11.7)
	200만원이상	25(17.5)	99(16.8)	124(16.9)
비용실소재위치	(도심)변화가	86(60.1)	270(45.8)	356(48.6)
	상가	34(23.8)	155(26.3)	189(25.8)
	거주지역	13(9.1)	144(24.4)	157(21.4)
	기타	10(7.0)	21(3.6)	31(4.2)
계		143(100.0)	590(100)	733(100.0)

원 11.7%순이었다. 미용실 위치별로는 도심(변화가)가 48.6%, 상가가 25.8%였으며 거주지역이 21.4%였고, 기타는 4.2%순이었다.

3) 일반적 특성별 삶의 질 수준

일반적 특성별 삶의 질 수준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이 3.27점(p<0.001), 결혼상태에서는 기타가 3.27점으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혼 3.31점, 미혼 3.07점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3.25점(p<0.001), 수면시간에서는 8시간 이상 군이 3.22점(p<0.001), 치료질환에서는 질환 없음이 3.14점(p<0.001)으로 다른 군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

자가, 종교에서는 종교가 있는 군이 다른 군보다 삶의 질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업무관련 특성별 건강증진 행위 수준

업무관련 특성별 건강증진 행위 수준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근무경력별로는 10년 이상 군이 3.28점(p<0.001), 근무인원에서는 3명 이하가 2.70점(p<0.01), 근무지위별로는 실장이 2.81점(p<0.001), 월 소득에서는 200만원 이상이 2.76점(p<0.001)으로 다른 군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근무시간별로는 9시간미만 군이, 월 휴일 수에서는 3일 이하 군이, 미용실 소재위치에서는 거주지역이 다른 군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통

<표 3> 일반적 특성별 삶의 질 수준

(단위 : 평균±표준편차)

특성	구분	N 733	삶의 질 수준	t or F	p-value
성별	남자	143	3.19±0.43	-2.254	0.24
	여자	590	3.10±0.42		
연령	19세이하	101	3.01±0.43	12.210***	0.000
	20~24세	209	3.02±0.40		
	25~29세	163	3.10±0.39		
	30~39세	172	3.25±0.41		
	40세 이상	88	3.27±0.44		
결혼상태	미혼	462	3.07±0.41	10.201***	0.000
	기혼	255	3.21±0.43		
	기타	16	3.27±0.52		
종교	없다	305	3.08±0.39	6.046	0.14
	있다	428	3.16±0.44		
학력	고졸이하	347	3.08±0.41	6.618***	0.001
	전문대졸	294	3.14±0.43		
	대졸이상	92	3.25±0.43		
수면시간	6시간미만	135	2.97±0.42	9.335***	0.000
	6~7시간미만	205	3.12±0.39		
	7~8시간미만	198	3.13±0.45		
	8시간이상	195	3.22±0.41		
치료질환	있음	96	2.99±0.41	10.387***	0.001
	없음	637	3.14±0.42		

*p < 0.05, **p < 0.01, ***p < 0.001

<표 4> 업무관련 특성별 건강증진 행위 수준

(단위 : 평균±표준편차)

특성	구분	N 733	건강증진 행위수준	t or F	p-value
근무경력	1년미만	262	3.03±0.41	11.309***	0.000
	1~3년미만	121	3.05±0.41		
	3~10년미만	192	3.16±0.40		
	10년이상	158	3.28±0.43		
1일 근무시간	9시간미만	119	2.71±0.32	1.717	0.180
	9~12시간이상	547	2.66±0.34		
	12시간이상	67	2.62±0.40		
월 휴일수	3일이하	184	2.68±0.30	0.566	0.568
	4일	51	2.66±0.35		
	5일이상	498	2.66±0.36		
근무인원(동료)	3명이하	259	2.70±0.35	4.736**	0.003
	4~9명	214	2.68±0.37		
	10~19명	117	2.63±0.33		
	20명이상	143	2.58±0.31		
근무지위	인턴	242	2.57±0.32	12.298***	0.000
	중상	130	2.66±0.34		
	디자이너	166	2.64±0.33		
	실장	61	2.81±0.37		
	원장	134	2.79±0.35		
월 소득	49만원이하	125	2.56±0.31	6.257***	0.000
	50~99만원	238	2.64±0.34		
	100~149만원	160	2.68±0.36		
	150~199만원	86	2.69±0.36		
	200만원이상	124	2.76±0.34		
미용실소재위치	(도심)변화가	356	2.63±0.34	2.454	0.062
	상가	189	2.67±0.33		
	거주지역	157	2.72±0.38		
	기타	31	2.62±0.37		

*p < 0.05, **p < 0.01, ***p < 0.001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업무관련 특성별 삶의 질 수준

업무관련 특성별 삶의 질 수준의 평균점수를 살펴 보면 근무경력별로는 10년 이상 군이 3.28점(p<0.001), 근무시간에서는 9시간미만이 3.18점(p<0.05), 근무지위별로는 원장이 3.27점(p<0.001), 월 소득별로는 소득 200만원 이상이 3.30점(p<0.001)으로 다른 군보

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월 휴일 수에서는 4일 군이, 근무인원에서는 3명 이하 군이, 미용실 소재 위치에서는 거주지역이 다른 군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 영역별 삶의 질 수준

삶의 질의 전체 평균점수는 3.12이었으며 영역별

<표 5> 업무관련 특성별 삶의 질 수준

(단위 : 평균±표준편차)

특성	구분	N 733	삶의 질 수준	t or F	p-value
근무경력	1년미만	262	3.04±0.41	13.217***	0.000
	1~3년미만	121	3.05±0.41		
	3~10년미만	192	3.16±0.40		
	10년이상	158	3.28±0.43		
1일 근무시간	9시간미만	119	3.18±0.41	4.031*	0.018
	9~12시간미만	547	3.12±0.42		
	12시간이상	67	3.00±0.49		
월 휴일수	3일이하	184	3.09±0.37	0.568	0.567
	4일	51	3.14±0.49		
	5일이상	498	3.13±0.44		
근무인원(동료)	3명이하	259	3.15±0.41	1.262	0.286
	4~9명	214	3.14±0.42		
	10~19명	117	3.08±0.38		
	20명이상	143	3.08±0.47		
근무지위	인턴	242	3.02±0.40	10.724***	0.000
	중상	130	3.06±0.43		
	디자이너	166	3.16±0.41		
	실장	61	3.24±0.41		
	원장	134	3.27±0.43		
월소득	49만원이하	125	3.00±0.43	10.039***	0.000
	50~99만원	238	3.06±0.38		
	100~149만원	160	3.15±0.45		
	150~199만원	86	3.16±0.39		
	200만원이상	124	3.30±0.42		
미용실소재위치	(도심)변화가	356	3.12±0.43	1.964	0.118
	상가	189	3.10±0.42		
	거주지역	157	3.18±0.42		
	기타	31	3.01±0.40		

*p < 0.05, ** p< 0.01, ***p < 0.001

로는 사회적 영역이 3.30으로 가장 높았고 정신적 영역 3.19, 경제적 영역 3.03, 신체적 영역이 2.9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7)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하

여 전체 삶의 질 평균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성별, 학력)과 업무 관련 특성(근무시간, 근무지위, 월 소득)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3.593, p=0.000),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삶의 질을 35.5%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들 독립변수 중에 성별, 월 소득, 근

<표 6> 영역별 삶의 질 수준

	신뢰도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삶의 질	0.877	47	3.12	0.43	1.68	4.45
신체적	0.701	9	2.93	0.55	1.22	4.89
정신적	0.773	17	3.19	0.51	1.42	4.50
사회적	0.685	10	3.30	0.43	1.70	5.00
경제적	0.771	11	3.03	0.55	1.36	5.00

<표 7>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분석(다중회귀분석)

변수	B	SE B	Beta	t	P
성별	0.105	0.035	0.098	3.017**	0.003
월소득	0.035	0.017	0.110	2.078*	0.038
근무시간	-0.024	0.026	-0.028	-0.926	0.355
근무지위	0.033	0.017	0.084	1.467*	0.032
학력	0.027	0.019	0.044	1.405	0.160

R²=0.355, adj-R²=0.345, F=23.593, p=0.000, n=733

*p < 0.05, **p < 0.01, ***p < 0.001

무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2. 고 찰

미용실 근무자들의 삶의 질 평균점수는 3.12점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김미경(2001)¹²⁾의 연구 3.26보다 낮았다. 김미경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영역 3.44, 사회적 영역 3.32, 정서적 영역 3.31, 생활환경 영역 3.06의 순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로는 사회적 영역이 3.30으로 가장 높았고 정신적 영역 3.19, 경제적(생활환경) 영역 3.03, 신체적 영역이 2.93 순으로 사회적 영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종렬 등(2000)¹³⁾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영역 3.31, 심리적 영역 3.20, 사회적 영역 3.15, 생활환경 영역 3.09로 신체적 영역의 점수가 제일 높았다. 영역별 수준에서 미용업 종사자들의 신체적 영역의 수준이 타 연구보다 낮게 분석된 것은 업무특성상 과도한 근무시간 및 과중한 업무 불규칙한 생활습관,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이 다른 연구와 구분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삶의 질 비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김미경(2001)의 연구와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종렬 등(2000)의 연구에서도 전체 삶의 질

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군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삶의 질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김미경(200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은 사람들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종렬 등(2000)의 연구에서는 20~39세의 연령층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 상태에서는 다른 연구와는 다르게 기타 군이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혼, 미혼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기타 군의 전체 조사 대상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김미경(2001)의 연구에서는 기혼자들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종렬 등(2000)의 연구에서는 미혼자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학력에서는 학력이 높은 군일수록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종렬 등(2000)의 연구에서는 생활환경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학력이 높은 군의 삶의 질이 높았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정도가 높은 군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종교에서는 종교가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미용경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3년 이하 군이 평균점수 이하였으며 3년 이상 군이 평균점수 이상이었다. 광형심 등(2000)¹⁴⁾은 미용사의 직업의식에 대한 연구에서 미용샵을 운영할 수 있는데 걸리는

기간으로 3년 4.0%, 4~5년 30.3%, 6년 이상 48.0%로 보고하였는데 경력이 많을수록 업무에 대한 역량과 성취가 좋아짐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 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김미경(2001)의 연구에서도 업무 경력이 많은 군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 지위에서는 원장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근무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일 근무시간에서는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삶의 질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이 9시간 이상에서 12시간미만으로 다른 직종과는 달리 장시간 근무하는 특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월 휴일 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미용실 규모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로 근무동료의 수와 미용실 위치별로 비교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월 소득은 전체적 및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러 선행연구 노유자(1988), 김미경(2001), 이종렬 등(2000)의 연구와 같이 수입이 많은 군이 적은 군보다 유의하게 삶의 질 평균점수가 높았다. 왕석순 등(1995)¹⁵⁾의 연구에서도 소득의 증가에 따라 위기감, 우울감, 아노미정도, 스트레스가 낮았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삶의 질 평균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성별, 학력)과 업무 관련 특성(근무시간, 근무지위, 월 소득)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삶의 질을 35.5%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들 독립변수 중에 성별, 월 소득, 근무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삶의 질 각 영역별로 분석한 이종렬(2000)의 연구에서의 주요 연관변수는 건강상태, 경제상태, 스트레스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영향 변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김미경(2001)의 연구에서는 건강과 소득 수준이 가장 주요한 변수였다.

본 연구는 미용사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밝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먼저 조사대상이 임의 선정된 미용사들이므로 전체 미용사를 대표하지는 않으므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미용사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용된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연구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월수입, 근무지위, 학력 등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정확히 응답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V. 결 론

미용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요약과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특성별 조사대상자의 분포에서는 성별로는 여자가 80.5%, 연령별로는 20세에서 24세가 28.5%, 결혼 상태에서는 미혼이 63.0%, 종교에서는 종교가 있는 군이 58.4%,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47.3%, 수면시간에서는 6시간 이상 7시간미만이 28.0%, 질환유무에서는 질환이 없는 군이 86.9%였다.

2. 업무관련 특성별 조사대상자의 분포에서는 근무경력별로는 1년 미만이 35.7%, 근무시간에서는 9시간 이상 12시간미만 74.6%, 1개월간의 휴일 수는 5일 이상이 67.9%, 같이 근무하는 동료의 수는 3명이 하가 35.3%, 근무지위별로는 인턴이 33.0%, 월 소득에서는 50만원에서 99만원 군이 32.5%, 미용실 위치는 도심(변화가)이 48.6%였다.

3. 일반적 특성별 삶의 질 수준의 평균점수의 경우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이, 결혼 상태에서는 기타, 기혼, 미혼 순이었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수면시간에서는 8시간 이상 군이, 치료질환에서는 질환이 없는 군이 다른 군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연령, 결혼상태, 학력, 수면시간, 치료질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업무관련 특성별 삶의 질 수준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근무경력에서는 10년 이상 군이, 근무 시간에서는 9시간미만이, 근무 지위에서는 원장이, 월 소득에서는 200만원이상 군이 다른 군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근무경력, 근무시간, 근무지위, 월 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삶의 질의 전체 평균점수는 3.12이었으며 영역별로는 사회적 영역이 3.30으로 가장 높았고 정신적 영역 3.19, 경제적 영역 3.03, 신체적 영역이 2.9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6. 미용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독립변수 중에 성별, 월소득, 근무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35.5%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용사들은 삶의 질의 평균점수가 다른 일반인들과는 달리 낮았으며, 근무경력과 월 소득이 낮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낮았다. 미용사들은 다른 일반인들과는 달리 과도한 근무시간 및 과중한 업무에 의한 불규칙한 생활습관, 운동부족

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미용사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1일 근무시간을 3교대로 하여 8시간 정도로 근무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미용사들은 업무의 특성상 미용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직장에서 적용 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미용사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에련(2001).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12.
- 2) 오웅영(2000). 미용사의 건강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
- 3) 남현주, 김양순, 김은숙(2000). 미용업 특성과 미용사의 자연유산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6(3), p. 656.
- 4) 최영진, 박수경(2000). 미용사들의 정신사회적 안녕 상태와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6(2), pp. 357-369.
- 5) Lipowski Z.J(1985) Psychosomatic medicine liaison psychiatry. New York, Plenum Medical Book Co., pp. 71-90.
- 6) Ferrans, C.F. and M.J. Powers(1985). Quality of life index;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 7) WHO (1993). WHOQOL study protocol. WHO, Geneva.
- 8) Dubos, R.(1976). The State of Health and Quality of Life. The Western Journal of Medicine, 125(1), pp. 8-9.
- 9) George, L.K. and L.B. Bearon(1980). Quality of life in older persons. New York : Human Sciences Press, INC.
- 10) Young, K.J. and A.J. Longman(1983). Quality of Life and persons with melanoma-preliminary modal testing. Cancer Nursing, 10(2), p. 339.
- 11) 노유자(1988).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8. pp. 25-28. 31-39. 76-82.
- 12) 김미경(2001). 건강증진행위수준과 삶의 질 간의 관련성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29-39.
- 13) 이종렬, 박천만(2000). WHOQOL-Bref를 이용한 대구시민의 삶의 질. 보건행정학회지, 10(3), pp. 129-154.
- 14) 광형심, 유현주 (2000). 미용사의 직업의식과 근무환경에 대한 비교조사연구-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6(1), pp. 201-213.
- 15) 왕석순, 서병숙(1995). 중년기 적응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한국 노년학회지, 15(1), pp. 54-73.